

제55기 공군사관생도 1차 선발시험 문제지

제 1 교시

언 어 영 역

공 통

성명

수험번호

--	--	--	--	--	--	--	--

A 형

1

- 먼저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 번호를 정확하게 기입하십시오.
- 답안지에 성명, 수험 번호, 문형, 지원 분야를 표기하십시오.
- 문제는 총 40문항입니다. 문항에 따라 배점이 다르니, 각 물음의 끝에 표시된 배점을 참조하십시오.
2.2점과 2.8점 문항은 점수가 표시되어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2.5점 문항입니다.

1. <보기>의 개요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월드컵 개최로 국가 발전을 이룬 나라와 이루지 못한 나라’라는 내용을 넣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보 기>

I. 서론 -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

가. 4강 진출의 신화

나. 국가 인지도의 급상승

II. 본론1 - 월드컵 성공의 바탕

가. 온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한 뜨거운 응원 열기

나. 우리 국민이 보여 준 성숙한 시민 의식

III. 본론2 - 월드컵 성공은 국가 발전의 계기

가. 성숙한 시민 의식과 응집력을 지속시키기 위한 방안

나. 제고된 국가 이미지를 경제 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한 방안

IV. 결론

가. ‘88 서울 올림픽’을 국력 신장의 계기로 삼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

나. 우리의 다짐과 각오

- ① 서론의 끝
- ② 본론1의 첫머리
- ③ 본론1의 끝
- ④ 본론2의 첫머리
- ⑤ 결론의 첫머리

2. 다음 중 의미가 분명하고 어법에도 맞는 자연스런 문장은?

- ① 선생님, 금년에도 부디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② 할아버지께서는 할머니보다 산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 ③ 아버지, 할아버지께서 사랑방으로 건너오라 하십니다.
- ④ 이웃집에 도둑이 들었는데,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잡히고 말았다.
- ⑤ 금연 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은 법을 어기는 불법 행위입니다.

3. <보기>의 글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은? [2.8점]

<보 기>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은 물론 인간만은 아니다. 유인원, 어류, 조류, 곤충류 등도 일정한 영토를 확보하고 집단 생활을 하며, 그 안에는 계층적(階層的) 차이까지 있다. 특히, 유인원은 혈연적(血緣的) 유대(紐帶)를 기초로 하는 가족이나 가족 집단이 있고, 성(性)에 의한 분업(分業)이 행해지며, 새끼를 위한 공동 작업도 있어, 인간의 가족 생활과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본능(本能)에 따른 것이므로, 창조적(創造的)인 인간의 그것과는 구별된다. 따라서, 이들의 집단을 군집(群集)이라 하고, 인간의 집단을 사회(社會)라고 불러 이들을 구별한다.

- ① 유인원도 인간처럼 집단 생활을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가족 생활과는 아주 다르다. 그래서 인간 집단을 사회라 하고, 동물 집단을 군집이라 한다.
- ② 집단 생활을 하는 여러 동물 중 유인원은 가족 생활을 하는 인간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본능적인 점에서 창조적인 인간 집단과 구별된다.
- ③ 인간 외에도 여러 동물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중 유인원이 인간과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동물 집단은 본능에 따른 것으로 창조적인 인간 집단과 구별된다.
- ④ 집단 생활을 하는 여러 동물과 인간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많다. 그 중 유인원은 가족 생활을 한다는 점에서 인간과 가장 유사하지만, 이는 본능적인 것으로 창조적인 인간 집단과는 구별된다.
- ⑤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 중 유인원은 인간과 비슷한 점이 많지만, 이들 집단은 본능적인 것으로 창조적인 인간 집단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들 집단을 군집이라 하고 인간의 집단을 사회라 하여 이들을 구별한다.

[4~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산새도 날아와
우짚지 않고,

구름도 떠 가곤
오지 않는다.

인적이 끊긴 곳
홀로 앓은
가을 산의 어스름.

호오이 호오이 소리 높여
나는 누구도 없이 불러 보나.

울림은 헛되이
먼 골 골을 되돌아 올 뿐.

산 그늘 길게 늘어
붙게 해는 넘어가고

황혼과 함께
이어 별과 밤은 오리니.

삶은 오직 갈수록 쓸쓸하고
사랑은 한갓 괴로울 뿐.

그대 위하여 나는 이제도 이
긴 밤과 슬픔을 갖거니와.

이 밤을 그대는, 나도 모르는
어느 마을에서 쉬느냐.

- 박두진, <도봉>

(나)

한때 그 가슴에 호랑이를 기르고
한양 도읍 오백 년 산자락에 펼치고
서울의 슬픔과 기쁨

㉠ 소꿉장난처럼 내려다 보던

장엄한 인왕산

아득한 할아버지의 고향
어린날 올라가고 싶었던
헌칠한 미끄럼바위의

믿음직한 얼굴 어디로 갔나
 맑은 물 돌 사이로 흐르던
 가파른 골짜기 소나무 숲에 오늘은
 깨어진 유리 조각 비닐 봉지 나뒹굴고
 석유 냄새 풍기는 잿빛 아지랑이
 큰 산을 가리고 아른거린다
 그 역센 지맥도 이제는
 동서남북 아스팔트길로 모두 끊기고
 8백 만 인구의 한가운데 간혀
 멀지않아 쓰러질 듯
 가쁜 숨 헐떡인다
 비쩍 마른 옆얼굴과
 헐벗은 뒷모습 드러낸 채
 종로구와 서대문구 변두리에 주저앉아
 늘그막에 셋방살이를 하는
 불쌍한 인왕산

- 김광규, <인왕산>

(다)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늘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짙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 포성이 메아리쳐서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 1번지 채석장에 도루 가서
 금방 따낸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김광섭, <성북동 비둘기>

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가), (다)는 자연의 장엄함을 노래하고, (나)는 인간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있다.
- ② (가), (나)는 인간의 메마른 삶을 다루고, (다)는 자연의 황폐함을 고발하고 있다.
- ③ (나), (다)는 문명 비판적 성격을 띠고, (가)는 개인적 정서 표현에 치중하고 있다.
- ④ (나), (다)는 인간 욕망의 위험성을 보여 주고, (가)는 자연의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다.
- ⑤ (가), (나)는 자연에 대한 인간의 의무를 강조하고, (다)는 자연의 가치를 칭송하고 있다.

5. (가)를 내용의 흐름에 따라 네 부분으로 나눌 때,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1, 2, 3연 — 4, 5연 — 6, 7연 — 8, 9, 10연
- ② 1, 2, 3연 — 4, 5, 6연 — 7, 8연 — 9, 10연
- ③ 1, 2, 3, 4연 — 5, 6연 — 7, 8연 — 9, 10연
- ④ 1, 2연 — 3, 4연 — 5, 6, 7연 — 8, 9, 10연
- ⑤ 1, 2연 — 3, 4, 5연 — 6, 7연 — 8, 9, 10연

6. ㉠과 표현법이 가장 유사한 것은? [2.2점]

- ①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② 바람아 나는 알겠다. / 네 말을 나는 알겠다.
- ③ 님은 갓습니다. 아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갓습니다.
- ④ 내 그를 맞아 이 포도를 따 먹으면, / 두 손을 함뱍 적셔도 좋으련.
- ⑤ 산(山)골에서는 집터를 찌고 달케를 닦고 / 보름달 아래서 노루고기를 먹었다.

7.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인간의 욕망이 낳은 이기적인 공간이다.
- ② ㉡ : 본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던 사랑과 평화의 새이다.
- ③ ㉢ :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을 잘 드러낸다.
- ④ ㉣ : 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무욕의 자세를 상징한다.
- ⑤ ㉥ : 인간이 자연과 공존하기 어렵다는 점을 내포한다.

[8~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우리나라에서는 ‘노인 현상’이라고 하면 곧 노부모 모시는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직 시대의 중요한 현상을 ‘사회화(社會化)’하기보다는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보고자 하는 전통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인 현상’을 효도의 맥락에서 다루려는 경향이 매우 강하다.

하지만 노인에 대한 효도를 강조하면서도 방송에서 노인을 희화화(戲畵化)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 역시 우리 사회의 특별한 현상 중 하나다. 노인의 이상한 말투와 몸짓을 개그 소재로 삼기도 하고, 심지어 노인들을 출연시켜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고는 배꼽을 잡고 웃는다. 더 큰 문제는 그런 방송을 바로 노인들이 많이 보게 된다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노인들은 여가의 상당 시간을 방송 시청에 할애하기 때문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장애인 등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점점 증가되고 있다. 그들을 위한 자원 봉사 활동도 늘고 있다. 방송에서 장애 때문에 나타나는 장애인의 이상한 행동을 희화화한다면 아마 그 방송사는 문을 닫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노인들에 대해서는 왜 허용되는가? 그리고 노화에 따른 각종 ‘장애’를 느끼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어디 있는가?

나이가 들면서 크고 작은 신체 장애가 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고 어쩔 수 없는 사실이다. 노화로 인한 신체 장애는 사십대 중반의 갱년기를 넘기면 누구에게나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원시가 된다는가, 치아가 약해진다는가, 높은 계단을 빨리 오를 수 없다는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는가, 기억력이 감퇴하는 것 등이 그 현상이다. 노인들에게 ‘당신들도 젊은이들처럼 할 수 있다.’라고 헛된 자존심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

우리가 장애인들에게 특별한 배려를 하는 것은 그들의 인권을 위해서이다. 그것은 건강한 사람과 동등하게 그들을 인간으로 대하는 태도이다. 늙음이라는 신체적 장애를 느끼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도 그들의 인권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집안의 어르신을 잘 모시는 것을 효도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인권의 관점에서 볼 줄도 알아야 한다. 노부모에 대한 효도가 좀더 보편적 차원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세대들에게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장애인을 위한 자원 봉사에는 열심인 한 젊은이가 자립 능력이 없는 병약한 노부모 모시기를 거부하며, 효도의 ㉡시대착오적 측면을 적극 비판하는 경우를 보았다. 이렇게 인권의 사각 지대는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다.

보편적 관점에서 보면, 노부모를 잘 모시는 것은 효도의 차원을 넘어선 인권 존중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 존중은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인권은 그것이 누구의 인권이든, 언제 어디서든 존중되어야 한다.

인권은 21세기의 ‘화두(話頭)’이다. 우리가 인권을 정치적 맥락에서만 보고자 하는 20세기적 사고의 틀을 벗고, 인권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차원적 고려의 대상으로 확대할 때, 우리나라의 인권은 신장될 것이며 인권 국가로서 모범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국제 사회에서 인권 문제를 독창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설 수도 있을 것이다.

8. 이 글의 대전제가 되는 명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2.8점]

- ① 인권은 누구의 인권이든 존중되어야 한다.
- ② ‘노인 현상’은 효도의 맥락에서 다루어야 한다.
- ③ 국제적 인권 국가로서의 위상을 획득해야 한다.
- ④ 인권 신장은 노인 문제 해결에서 출발해야 한다.
- ⑤ 인권은 정치적 맥락에서 강력하게 보장해야 한다.

9. 글쓴이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인권을 정치적 맥락에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
- ② 최근 우리나라는 장애인보다 노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 ③ 노인들이 젊은이들처럼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 ④ 신체적 장애를 느끼는 노인들에 대한 배려는 인권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⑤ 우리나라는 ‘노인 현상’을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전통이 남아 있다.

10.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글쓴이가 취할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통적 관습에 어긋나지 않는 해결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 ② 먼저 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모색할 것이다.
- ③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신념으로 문제를 이해할 것이다.
- ④ 그 문제의 심각성과 해결 가능성을 예리한 직관으로 판단할 것이다.
- ⑤ 그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어떤 고정 관념에 사로잡혀 있는지 점검할 것이다.

11.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모든 노인들을 가족처럼 공경해야 한다.
- ② 노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한다.
- ③ 노인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인 도움을 주어야 한다.
- ④ 노인들의 장애로 인한 부담을 사회가 나누어 가져야 한다.
- ⑤ 노인들이 한계를 인정하고 스스로 물러날 수 있도록 한다.

12. ㉡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정민주 씨는 투표할 때마다 반드시 입후보자들의 출신 고교를 확인한다.
- ② 차사랑 씨는 직장에서 승진하였기에 자가용 자동차를 고급 차로 바꾸었다.
- ③ 한지방 씨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매일 패스트푸드 음식점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
- ④ 서행복 씨는 재산 증식을 위해 주거 환경보다 투자 가치를 고려하여 주택을 구입했다.
- ⑤ 장부장 씨는 직원의 창의적 업무 수행을 위해 근무 복장을 단정하고 통일된 정장 차림으로 할 것을 사장에게 건의하였다.

[13~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강호(江湖)에 녀름이 드니 초당(草堂)에 일이 업다.

유신(有信)한 강파(江波)는 보내느니 브람이라.

이 몸이 서늘희움도 역군은(亦君恩)이샀다.

- 맹사성, <강호사시가>

(나) 흰 구름 브흰 煙霞(연하) 프로니는 山嵐(산람)이라. 千巖(천암) 萬壑(만학)을 제 집을 삼아 두고
나명성 들명성 일히도 구는지고. 오르거니 느리거니 長空(장공)의 썬나거니 廣野(광야)로 건너거니 프
르락 불그락 여트락 디트락 斜陽(사양)과 섯거디어 細雨(세우)조차 썬리난다.

籃輿(남여)를 비야 타고 솔 아리 구븐 길노 오며 가며 흐는 적의 綠楊(녹양)의 우는 黃鶯(황앵) 嬌
態(교태) 겨워 흐는고야.

나모 새 츠즈지어 綠陰(녹음)이 얼린 적의 百尺(백척) 欄干(난간)의 긴 조으름 내여 퍼니 水面(수
면) 涼風(양풍)이야 굿칠 줄 모르는가. 즌서리 싸딘 후의 산 빗치 錦繡(금수)로다. 黃雲(황운)은 또 엇
디 萬頃(만경)의 퍼거디오. 漁笛(어적)도 흥을 계워 돌물 짜와 브닌다.

草木(초목) 다 진 후의 江山(강산)이 미물커놀, 造物(조물)리 현스흐야 氷雪(빙설)로 꾸며내니, 瓊宮
瑤臺(경궁요대)와 玉海銀山(옥해은산)이 眼底(안저)에 ㉡버려세라. 乾坤(건곤)도 ㉢가옴열샤 간 대마
다 경이로다.

人間(인간)을 썬나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이것도 보려 흐고 저것도 드르려코 브롬도 혀려 흐고
돌도 마즈려코, 밤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柴扉(시비)란 뉘 다드며 딴 곳츠란 뉘 쓸려뇨. 아
침이 ㉣나브거니 나조히라 슬흘소냐. 오늘리 不足(부족)커니 來日(내일)리라 有餘(유여)흐랴. 이 피히
안자 보고 더 피히 거러 보니 煩勞(번로)흔 므음의 브릴 일이 아조 업다. 쉼 사이 업거든 길히나 전
히야. 다만 흐 靑藜杖(청려장)이 다 브되여 가노미라.

㉤술이 닉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냐. 블너며 텃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醉興(취흥)을 비야
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트시랴. 누으락 안즈락 구브락 저즈락 을프락 폭람흐락 노혜로 놀
거니 天地(천지)도 넘고넘고 日月(일월)도 혼가흐다. 羲皇(희황) 모틀러니 이적이야 괴로고야. 神仙(신
선)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江山風月(강산풍월) 거놀리고 내 百年(백년)을 다 누리면 岳陽樓(악양루) 상의 李太白(이태백)이 사
라오다 浩蕩(호탕) 情懷(정회)야 이에서 더홀소냐.

이 몸이 이렇굼도 亦君恩(역군은)이샀다.

- 송순, <면앙정가>

(다) 유상 앵비(柳上鶯飛)는 편편금(片片金)이요, 화간 접무(花間蝶舞)는 분분설(紛紛雪)이라. 삼춘 가
절(三春佳節)이 좋을씨고. 도화만발 점점홍(桃花滿發點點紅)이로구나. 어주축수 애삼춘(漁舟逐水愛三
春)이어든 무릉 도원(武陵桃源)이 예 아니냐. 양류세지 사사록(楊柳細枝絲絲綠)하니 황산곡리 당춘절
(黃山谷裏當春節)에 연명 오류(淵明五柳)가 예 아니냐.

제비는 물을 차고, 기러기 무리져서 거지 중천(居之中天)에 높이 떠서 두 나래 ㉥훨씬 펴고, 펄펄펄
백운 간(白雲間)에 높이 떠서 천리 강산 머나먼 길을 어이 갈꼬 슬피 운다.

원산(遠山)은 첩첩(疊疊), 태산(泰山)은 ㉦주춤하여, 기암(奇岩)은 층층(層層), 장송(長松)은 낙락(落
落), 에이구부러져 광풍(狂風)에 흥을 겨워 우줄우줄 춤을 춘다.

층암 절벽상(層岩絶壁上)의 폭포수(瀑布水)는 팔팔, 수정림(水晶簾) 드리운 듯, 이 골 물이 주루루
룩, 저 골 물이 쌀쌀, 열에 열 골 물이 한데 합수(合水)하여 천방저 지방저 소쿠라지고 평퍼져, 넉출
지고 방울져, 저 건너 병풍석(屏風石)으로 으르렁 팔팔 흐르는 물결이 은옥(銀玉)같이 흩어지니, 소부
허유(巢父許由) 문답하던 기산 영수(箕山潁水)가 예 아니냐.

- <유산가>

- ① a : 펼쳐져 있다 ② b : 풍요롭구나
③ c : 부족하네 ④ d : 보다 더 ⑤ e : 우뚝 솟아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북한에서는 어휘 정리 문제를 민족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른바 ‘말다듬기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이 결과, 남한의 표준어와 북한의 문화어는 어휘 분야에서 이질적인 점이 가장 많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목적성이 강한 ㉠북한의 언어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어휘 면에서 보이는 북한말의 특징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남한에서 사용하는 말과 형태는 같은데 의미가 다르게 사용되는 단어가 많다. ‘동무, 인민’ 등의 단어가 남한에서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거니와, 가령 ‘아가씨’ 같은 말도 좋은 의미로는 사용되지 않고 봉건 사상이 담긴 부정적인 의미가 첨가되어 사용된다. ‘빨치산’은 원래 게릴라를 의미하는 말이었지만, 혁명적 영웅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된다. ‘아버이’란 말도 친부모 대신 김일성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낱말이 되었다. ‘궁전’은 ‘어린이들이나 근로자들을 위하여 여러 가지 교양 수단들과 체육·문화 시설 등을 갖추고 정치·문화·교양 사업을 하는 크고 훌륭한 건물’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천리마’는 ‘인민들의 혁명적 기상’이라는 새로운 정치 사상적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예술’이라는 말도 본래의 의미 외에 ‘기술과 수련’이라는 뜻으로 확대 사용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 제도의 차이에 따른 언어관 및 언어 정책의 차이로 말미암아 나타난 현상으로서, 문화어 정책 수립 이후 더욱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반대로, 같은 의미를 다른 형태의 단어로 나타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주로 어휘 정리 사업을 펼친 결과로 나타난 언어의 이질화 현상이다. 가령, 북한에서 ‘로터리’를 ‘도네게리’, ‘샤워실’을 ‘물맞이칸’, ‘커튼’을 ‘주름막’으로 바꾼 것은 외래어를 고유어로 다듬은 경우이다. ‘빼빼’는 ‘주머니종’이라고 한다. 그러나 ‘산책길’을 ‘유보도(遊步道)’, ‘대중 가요’를 ‘군중 가요(群衆歌謠)’로 표현하는 것들은 말다듬기와는 관련이 없으며,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북한에서 많이 사용되는 어휘 중에는 공산주의 체제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어휘가 많은데, 이 또한 남한 사람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단어들이다. ‘군중 로선, 로동 교양소, 농촌 테제, 동의학, 만가동, 밥 공장, 속도전, 인민 배우, 집체 담화, 후비대’ 등과 같은 예가 그것인데, 이 말들은 특별한 설명이 없을 경우에 남한 사람들은 그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북한말 어휘의 특징으로 가장 두드러진 점은, 말다듬기 사업의 결과 고유어를 사용하여 만들어진 단어들이 남한에 비해 비교적 많다는 점이다. 가령, ‘마사버리다, 우등불, 불무지, 토스레, 흔들레판’과 같은 단어들은 남한 사람에게는 모두 낯선 말들이다.

한편, 문화어라는 것이 평양말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다 보니 평안도, 함경도의 방언 어휘가 많이 수용되어 ‘망돌(맷돌), 부루(부추), 아츠럽다(애처롭다), 게사니(거위), 인차(곤)’ 등과 같은 말들이 사용되고 있다. 외래어의 경우는 남한이 영어의 영향을 받은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러시아 말의 영향을 받아서, ‘꿈무나(공동 집단), 그루빠(그룹), 트락토르(트랙터)’ 등과 같은 모습으로 사용되고 있다. 또, 의성어·의태어처럼 쉽게 변하지 않는 말들도 남북한이 다른 경우가 있다. 가령, ‘왈랑절랑 방울소리, 씨영씨영 배를 몰았습니다, 아글타글 애를 쓰면서, 속이 바질바질 탄다, 우줄우줄 춤을 춥니다’ 등과 같은 의성어·의태어 표현들은 남한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것이다.

이 같은 어휘의 차이는 현재 남북 대화를 할 경우에는 물론, 장차 통일이 되었을 때에도 상호간의 의사 소통에 지장을 주는 가장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같은 단어인데 의미가 다른 경우,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대화를 나누더라도 각각 다른 뜻으로 이해하거나 심지어는 오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이는 원만한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을 것이다.

17. 윗글의 서술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주장을 먼저 내세우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였다.
- ② 대상을 분석적으로 설명한 다음 다시 이를 종합하였다.
- ③ 일반적 진술을 한 다음 이에 대한 풍부한 사례를 열거하였다.
- ④ 개념을 정의한 다음 사례를 분석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 ⑤ 문제 상황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18. 윗글의 내용으로 미루어 짐작한 것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한의 언어 정책은 통일 후를 대비하여 수립되었다.
- ② 언어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상과 감정을 반영한다.
- ③ 북한에서는 언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사상성을 매우 중시하였다.
- ④ 사회 제도나 정책의 변경으로 언어를 의도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⑤ 북한에서 사용되는 외래어 중 영어계 외래어는 남한보다 그 수가 적을 것이다.

19. 글쓴이의 궁극적 의도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남북 대화의 필요성 강조
- ② 국어 순화의 구체적 방안과 방향 모색
- ③ 사회 제도의 변화와 언어 변화와의 관계 연구
- ④ 남북한의 언어 비교를 통한 바람직한 언어 정책의 수립
- ⑤ 통일 후 남북한의 언어 이질화가 초래할 문제에 대한 대비

20. ㉠에 대한 독자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2점]

- ① 언어 정책을 통해 사상을 강화하겠다는 생각은 억지 춘향이에 불과해.
- ② 목적성이 지나치다고는 하지만, 고유어를 살리려는 정신만은 본받을 만해.
- ③ 북한의 문화어 정책이 오히려 북한어의 발달을 가로막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아닌지?
- ④ 러시아어를 중심으로 외래어 정책을 편 것을 보면, 그들의 언어 정책은 일관성이 없어.
- ⑤ 평안도, 함경도 방언을 문화어에 많이 수용한 것은 북한의 개방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대추나무 뒤편 하늘은 벌써 짙은 보라색이다. 나는 보라색을 싫어한다. 손톱에 들이는 봉숭아물도, 닭벼슬 같은 맨드라미꽃도, 코스모스의 보라색 꽃도 다 싫다. 어머니 젓꼭지 빗갈까지도 싫다. 보라색은 어쩔지 아버지의 하는 일을 떠올리게 해 주고, 어머니의 피멍 든 얼굴을 생각나게 한다. 보라색은 또 말라붙은 피와 같고, 캄캄해질 징조를 보이는 빗갈이다. 열은 보라에서 짙은 보라로, 그래서 야금야금 어둠이 모든 것을 잡아먹다가 끝내 캄캄한 밤이 온다는 사실이 참으로 무섭다. 이 세상에 ㉠밤이 없는 곳이 있다면 나는 늘 그곳에서 살고 싶다. 나는 빛 속에 끼어 놀고 싶고, 또 빛 속에서 자고 싶다. 그러나 아버지는 어둠 속에서 충살당할 것이다. — <중략> —

이모부가 나를 조용히 부른다. 나의 눈물 젖은 눈에 이모부의 침통한 표정이 흔들린다. 이모부는 뿌드득 이빨을 간다. 무엇인가를 결심한 듯 빠르게 말한다.

㉡“가자, 니 아버지 보여 주꾸마.”

이모부는 내 손을 끌고 지서 뒷마당으로 간다. 다리를 절며 이모부는 성큼성큼 걸어 들어간다. ㉢일순이 터지려는 느낌나무의 잔가지가 바람에 잔잔히 떨리고 있는 뒷마당은 조용하다. 오직 달빛만 비치고 있다.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든다. 그러나 이모부는 말이 없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무엇인가 찾으려고 두리번거린다. 가슴 속이 마구 방망이질을 한다. ㉣찻찻한 눈을 닦고 아버지의 모습을, 죽은 아버지의 몸뚱이를 찾기 위해 이곳 저곳을 더듬어 본다.

느릅나무 밑, 거기에 가마니에 덮인 것이 눈에 들어온다. 이모부가 걸음을 멈춘다. 가마니 밑으로 발목과 함께 닳아빠진 농구화가 비어져 나와 있다. 그러나 정강이 부근부터 머리까지 가마니에 덮여 있다. 나는 숨을 멈추고 이모부의 허리를 꼭 잡는다. 온몸이 와들와들 떨린다.

“이거다. 이게 니 아버지의 시체다. 똑똑히 보았제. 앞으로는 절대로 아버지를 찾아서는 안 된다. 알겠제?”

이모부는 말한다. 내 손을 놓더니 가마니를 훌쩍 뒤집는다.

㉤아, 나는 볼 수 있었다. 달빛 아래 희미하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처참한 얼굴을. 반쯤은 피에 가려 있고, 나머지 부분은 하얗게 바래 버린 찌그러진 얼굴. 죽은 아버지의 눈은 부릅뜨고 있었다. 턱은 퉁퉁 부어 있고, 입은 커다랗게 벌어져 있었다. 아버지가 저렇게 되다니. 나는 믿을 수가 없다.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인 것만 같다. 검은 국방복의 저고리 단추가 풀어진 사이로 보이는 아버지의 가슴, 나는 어릴 때 그 가슴에 안겨 얼마나 재물을 떨었던가!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가슴은 그 무서운 보랏빛으로 변하고 말았다. 축 늘어진 어깨와 아무렇게나 내던져진 두 팔을 보니 아버지는 분명 잠을 자고 있지 않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

“죽다니, 저렇게 죽어 뿌리고 말다이!”

나는 흐느낀다. 이모부가 내 팔을 잡는다. 나는 사납게 뿌리친다. 내닫기 시작한다. 나의 눈에는 이모부도, 보초를 선 순경도 보이지 않는다. 아버진 거짓부렁이야. 거짓말만 하다 죽고 말았어. 아니야, 아니야. 죽지 않았어. 거짓말처럼 죽은 체하고 있을 따름이야. 나는 혈떡거리며 집과 반대인 낙동강 쪽으로 달린다. 숨이 턱에 닿는다. 달빛에 뿌영게 드러난 강둑이 보인다. 강둑에 올라서자 나는 숨을 가라앉힌다. 강물이 흐르고 있다. 언제 보아도 강물은 쉬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 달빛을 받은 강물이 잉어 비늘처럼 번뜩인다. 강 건너 서 있는 키 큰 포플라가 아버지 모습 같으다.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것 같으다. 어릴 적, 아버지와 나는 강둑을 거닐며 많은 이야기를 했다. 쉬지 않고 흐르는 이 강처럼 너도 쉬지 않고 자라야 한다. 마음도 그렇게 늠름하게 자라야 한다. 아버지는 이런 말도 했다. ㉦그러자 아버지가 죽었다는 실감이 비로소 나의 가슴에 소름을 일으키며 아프게 파고든다. 나는 갑자기 떨기 시작한다. 서른일곱으로 연기처럼 사라져 버린 아버지. 청개구리처럼 제 멋으로 그렇게 뛰다 어머니와 우리 오누이들을 남겨 두고 가 버린 아버지. 이제 내가 죽기 전 영원히 만날 수 없게 된 아버지. 어린 나에게 너무나 큰 수수께끼를 남기고 죽어 버린 아버지의 일생을 더듬을 때, 나는 알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사시나무처럼 떨다. ㉧그와 더불어 나는 무엇인가 깨달은 느낌을 가지게 되었다. 그 느낌을 꼬집어 내어 설명할 수는 없었으나, 이를테면 살아가는 데 용기를 가져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나 슬픔도 이겨내야 한다는 그런 내 용이었다.

- 김원일, <어둠의 혼>

21. 밑줄에서 ‘어린이의 눈’을 통하여 서술함으로써 얻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8점]

- ① 현실에 대한 비판 정신을 강도 높게 드러내 준다.
- ② 사건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수 있게 하고, 이야기에 몰입하게 한다.
- ③ 암울한 배경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독자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해 준다.
- ④ 작중 인물에 대해 친근감을 가지게 하고, 인물 묘사의 사실성을 높여 준다.
- ⑤ 작중 화자의 체험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 화자의 아픔을 절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한다.

22. 밑줄로 미루어 볼 때, ‘이모부’의 성격적 특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학식이 많아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이다.
- ② 평소에는 과묵하며 결정적일 때는 행동으로 표출하는 사람이다.
- ③ 부당한 처사에 대해서는 사리를 분명히 따질 줄 아는 사람이다.
- ④ 무뚝뚝하고 인정이 메말라 가족이나 세상 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 ⑤ 매우 친절하고 자상하여 어린이들에게도 세상의 이치를 잘 가르쳐 주는 사람이다.

23. ㉠과 ‘밤’의 상징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 동해 바다 물처럼 / 푸른 / 가을 / 밤
- ② 밤중만 어매 그늘 세 번이나 나린다네 / 게서 자라날 제 어인 줄을 몰랐고여 / 님의 공 깨닫고 보니 님은 밭서 머서라.
- ③ 밤에 홀로 유리를 닦는 것은 / 외로운 황홀한 심사이어니, / 고운 폐혈관이 찢어진 채로 / 아아, 너는 산새처럼 날러갔구나!
- ④ 달 가고, 밤 가고, 눈물도 가고, 티어 올 밝은 하늘 빛난 아침 이르면, 향기로운 이슬밭 푸른 언덕을, 충충충 달려도 와 줄 불이 고운 사람.
- ⑤ 3월(三月)에 눈이 오면 / 샤갈의 마을의 쥐똥만한 겨울 열매들은 / 다시 올리브 빛으로 물이 들고 / 밤에 아낙들은 / 그 해의 제일 아름다운 불을 / 아궁이에 지핀다.

24. ㉡에 내포된 의미를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은?

- ① ㉠ ② ㉡ ③ ㉢ ④ ㉤ ⑤ ㉥

25. ㉢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중 화자의 내면 심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 ② 작중 화자의 삶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다.
- ③ 작중 화자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작품의 분위기를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⑤ ‘앞순이 터지려는 느낌나무’는 작중 화자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6~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스포츠는 도시 문화의 일부이다. 시골 사람도 걷고, 뛰고, 무거운 짐을 옮긴다. 여름이면 헤엄을 치고, 겨울이면 썰매를 탄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몸놀림을 스포츠라 하지 않는다. 스포츠는 특정한 규칙에 따르는 운동과 경기이다. 또한 특정한 예식과 장식, 그리고 도구를 거느린다. 시골 사람의 몸동작이 어떤 자연스러운 운동이라면 스포츠는 어떤 규약에 따라 학습된 인위적 운동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스포츠를 배운다. 우리는 학교라는 근대적 제도를 통해 체조, 수영, 축구, 배구 등을 접하고 익힌다. 제도를 통해서 전파되고 재생산되는 운동, 그것이 스포츠이다. 그래서 어릴 적 냇가에서 미역감을 때 하는 ‘개헤엄’은 스포츠로서의 수영이 아니다. 개꿈이 무의미한 꿈이듯이 ㉠개헤엄은 무의미한 헤엄이다. 의미는 규칙과 코드가 있을 때 성립한다. 규칙과 코드가 있는 몸동작, 의미 있는 몸동작, 그것이 스포츠이다.

스포츠는 근대화의 이념 안에서 탄생·발전해 왔다. 근대성은, 여러 가닥의 역사적 흐름이 한 장소에 모여면서 형성된 어떤 역사 전개에 논리적 특성이다. 그 특성을 낳는 주요한 역사적 흐름으로, 과학과 기술의 발전, 표준화와 제도적 질서의 확충, 분업화와 전문화의 심화를 들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스포츠는 과학적 사유의 연장으로 볼 수 있다. 스포츠가 신체 사용의 기술을 고안하고 실행하는 영역이라면, 이 기술은 신체에 대한 객관적 관찰에 근거한다. 의학은 신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전업으로 한다.

이렇게 개발된 신체 사용의 기술은 표준화를 지향하며, 이런 표준화된 기술과 규칙이 질서로 자리잡는다. 육상 경기를 배우면서, 축구와 농구를 배우면서 아이의 신체는 근대성을 띠게 된다. 표준화된 규칙과 규율을 내면화하는 것이다.

스포츠는 근대적 분업화와 전문화의 산물이다. 스포츠가 전문적 직업의 영역으로 발돋움함에 따라 어떤 양극화 현상이 뒤따른다. 한쪽에는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장면을 연출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고, 다른 한쪽에는 그 장면을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 스포츠가 발전함에 따라 ㉡장면 생산자와 장면 소비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커진다. 규칙과 코드가 복잡해지고 전략과 작전이 정교해지면서 소비자는 생산된 장면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워진다.

이런 문제는 곧 사라진다. 해설자가 등장해서 선수들의 동작을 설명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은 스포츠가 상품화될수록 점점 커진다. 선수들이 연출한 장면을 대중이 만끽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도우미 역할이 있을 때만 고도의 전문성을 띠어 가는 스포츠가 대중으로부터 유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스포츠를 대중에게 가깝게 만드는 것은 무엇보다 미디어의 힘이다. 미디어를 통해서 스포츠는 비로소 광범위한 대중이 소비할 수 있는 스펙터클, 스펙터클로서의 상품이 될 수 있었다.

스포츠는 오늘날 수많은 직업과 생업을 창출하는 거대 규모의 사업 영역이 되었다. 다양한 종류의 기업이 스포츠의 영역에 자리잡고 있고, 전문가와 아마추어를 위한 관련 상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운동 선수들은 쇼 비즈니스에 동원된 연예인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근대성의 필연적 귀결이다. 스포츠는 근대성의 빛과 그림자가 그 어느 곳보다 강렬한 대비를 이루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장소이다.

26. 밑글의 내용을 일반화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포츠는 근대성의 특성을 잘 보여 준다.
- ② 스포츠는 근대적 학교 교육을 통해 생성되었다.
- ③ 스포츠는 몸의 생태와 조화를 이루어야만 한다.
- ④ 스포츠는 상업화와 전문화로 대중과 유리될 것이다.
- ⑤ 스포츠는 인간의 신체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자 했다.

27. ㉠과 ‘개’의 의미가 같은 것은?

- ① 개떡 ② 개살구 ③ 갯바람 ④ 개구쟁이 ⑤ 개다리소반

2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2.2점]

- ① 근대적 스포츠는 보통 학교 교육을 통하여 접하게 된다.
- ② 규칙을 따르지 않는 운동은 근대적 스포츠로 보기 어렵다.
- ③ 일부 운동 선수들은 연예인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한다.
- ④ 스포츠와 대중을 가깝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은 해설자의 전문성이다.
- ⑤ 아이의 신체는 표준화된 규칙과 규율의 내면화를 통해 근대성을 지니게 된다.

29. ㉡의 ‘거리’를 좁히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대한 전문적 해설
- ② 위성을 이용한 주요 경기의 텔레비전 중계 방송
- ③ 한국 국가 대표 축구팀 수준에 적합한 고도의 전문적 전술 개발
- ④ 메이저 리그에서 활약하는 강속구 선수의 동정에 대한 상세한 기사
- ⑤ 국가 대표팀간 축구 경기에서 두 팀의 전형과 전술에 대한 예리한 분석

30. 글쓴이가 2002년 월드컵의 ‘붉은 악마 신드롬’을 설명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스포츠의 상업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대표적 사례이다.
- ② 관중이 미디어에 의해 유도되는 현상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 ③ 자본에 의해 정교하게 계산된 행위의 위력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④ 관중이 스포츠가 주는 감동의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 ⑤ 관중이 스펙터클의 수동적 소비자로서의 기능을 다 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사례이다.

[31~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산야 사람이 대승상께 뵈나이다.”

승상이 이인인 줄 알고 황망히 답례 왈,

“사부는 어디로서 오신고?” 호승이 소왈,

“평생 고인을 몰라 보시니 귀인이 잇음 혈탄 말이 옳도소이다.”

승상이 다시 보니 과연 낮이 익은 듯하거늘, 홀연 깨쳐 능파 낭자를 돌아보며 왈,

“소유, 전일 토번을 정벌할 제 꿈에 동정 용궁에 가 잔치하고 돌아올 길에 남악에 가 노니, 한 화상이 법좌에 앉아서 경을 강론하더니 노부가 노화상이냐?”

호승이 박장대소하고 가로되,

- ㉠ “옳다, 옳다, 비록 옳으나 몽중에 잠깐 만나 본 일은 생각하고 십 년을 동처하던 일을 알지 못하니 뉘 양장원을 총명타 하더뇨?”

승상이 망연하여 가로되,

“소유, 십오륙 세 전은 부모 좌하를 떠나지 아녔고, 십육에 급제하여 연하여 직명이 있으니, 동으로 연국에 봉사하고 서로 토번을 정벌한 밝은 일찍 경사를 떠나지 아녔으니, 언제 사부로 더불어 십 년을 상종하였으리요?”

호승이 소왈,

“상공이 오히려 춘몽을 깨지 못하였도소이다.”

승상 왈, “사부 어찌면 소유로 하여금 춘몽을 깨게 하리요?”

호승 왈, “이는 어렵지 아니하니이다.”하고, 손 가운데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홀연 네 녀 뵈골에서 구름이 일어나 대상에 끼이어 지척을 분별치 못하니, 승상이 정신이 아득하여 마치 취몽 중에 있는 듯하더니 오래게야 소리질러 가로되,

“사부가 어이 정도로 소유를 인도치 아니하고 환술로 서로 희롱하나뇨?”

말을 맞지 못하여서 구름이 걷히니 호승이 간 곳이 없고, 좌우를 돌아보니 팔 낭자 또한 간 곳이 없는지라 정히 경황하여 하더니, 그런 높은 대와 많은 집이 일시에 없어지고 제 몸이 한 작은 암자 중의 한 포단 위에 앉았되, 향로에 불이 이미 사라지고,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스스로 제 몸을 보니 일백여덟 날 염주가 손목에 걸렸고, 머리를 만지니 갓 깎은 머리털이 가칠가칠 하였으니 완전히 소화상의 몸이요, 다시 대승상의 위의 아니니, 정신이 황홀하여 오랜 후에 비로소 제 몸이 연화 도량 성진 행자인 줄 알고 생각하니, 처음에 스승에게 수책하여 풍도로 가고, 인세에 환도하여 양가의 아들 되어 장원 급제 한림학사 하고, 출장 입상하여 공명 신퇴하고, 양 공주와 육 낭자로 더불어 즐기던 것이 다 하룻밤 꿈이라. 마음에 이 필연 사부가 나의 염려를 그릇함을 알고, 나로 하여금 이 꿈을 꾸어 인간 부귀와 남녀 정욕이 다 허사인 줄 알게 함이로다.

급히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하며 방장에 나아가니 다른 제자들이 이미 다 모였더라. 대사, 소리하여 묻되, “성진아, 인간 부귀를 지내니 과연 어떠하더뇨?”

- ㉡ 성진이 고두하며 눈물을 흘려 가로되,

“성진이 이미 깨달았나이다. 제자 불초하여 염려를 그릇 먹어 죄를 지으니 마땅히 인세에 윤회할 것이어늘, 사부 자비하사 하룻밤 꿈으로 제자의 마음 깨닫게 하시니, 사부의 은혜를 천만 겁이라도 갚기 어렵도소이다.” 대사 가로되,

“네, 승흥하여 갔다가 흥진하여 돌아왔으니 내 무슨 간예함이 있으리요? 네 또 이르되 인세에 윤회할 것을 꿈을 꾸다 하니, 이는 인세와 꿈을 다르다 함이니, 네 오히려 꿈을 채 깨지 못하였도다. ㉢‘장주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가 나비가 장주 되니’ 어니 거짓 것이요 어니 진짓 것인 줄 분별치 못하니, 어제 성진과 소유가 어니는 진짓 꿈이요 어니는 꿈이 아니뇨?”

성진이 가로되,

“제자, 아득하여 꿈과 진짓 것을 알지 못하니, 사부는 설법하사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사 깨닫게 하소서.”

- 김만중, <구운몽>

31. <보기>는 ‘조신의 꿈’의 줄거리이다. 밑글에 대응시킬 때 잘못된 것은? [2.2점]

— <보 기> —

신라 때 스님 조신이 명주 태수 ㉠김흔의 딸을 보고 홀딱 반했는데, 얼마 후 그녀가 딴 사람에게 출가했으므로 조신은 울면서 그녀를 못내 그리워했다. 하루는 ㉡부처를 원망하다가 피곤해서 낮잠이 들었는데, 김랑이 부모의 영을 못 이겨 결혼했지만 당신을 사랑한다며 돌아왔다. ㉢조신은 기뻐하며 고향에 돌아가 함께 살았는데, 자식을 다섯이나 두도록 살림은 찢어지게 가난하여 끼니를 끓일 조 한 되 없고 입을 옷도 없어, 하는 수 없이 자식을 서로 나누어 헤어지는 찰나에 잠을 깬다. 밖은 ㉣이미 어스름한 어둠이 되었고, 인생의 덧없음을 깨우친 그 후로는 김랑에게 반했던 마음도 씻고 ㉤불도에 진력하였다.

- ① ㉠ : 염려를 그릇함
- ② ㉡ : 스승에게 수책함
- ③ ㉢ : 양공주와 육낭자로 더불어 즐김
- ④ ㉣ : 지는 달이 창에 이미 비치었더라
- ⑤ ㉤ : 제자를 위하여 자비하사 깨닫게 하소서

32. <보기>는 ㉠을 요약적 제시 방식으로 고친 글이다. 고쳐 쓰는 과정에서 내용상 오류가 생긴 부분은?

— <보 기> —

일일은 한 호승이 찾아와 승상을 뵈기를 청하더니, ㉠그 인물이 비범해 보이더라. 호승이 전일 승상을 만난 바 있다고 말하였으되 잘 기억치 못하더니, 문득 생각하니 토번 정벌 시 ㉡동정 용궁에서 만났던 남악의 노화상이 분명하더라. ㉢어렴풋이 자신의 정체를 짐작하는 양승상에게 ㉣지난날의 더 깊은 인연을 말하였으되, 승상은 자기의 살아온 삶을 돌아 보며 ㉤꿈 속의 만남밖에 알지 못함을 말하더라. 호승이 승상의 깊은 춘몽을 깨우기 위해 석장을 들어 석난간을 두어 번 두드리니,

- ① ㉠ ② ㉡ ③ ㉢ ④ ㉣ ⑤ ㉤

33. 밑글에서 **대사**의 말하기 방식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 ① 자신의 주장에 대한 일정한 근거를 제시하면서 상대를 설득하려고 한다.
- ② 말의 효과를 얻기 위해 특별한 행동을 취하며, 달래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 ③ 이야기의 핵심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 깨우치도록 유도하고 있다.
- ④ 사교적인 말로 먼저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고 본 이야기에 접어드는 방식을 취한다.
- ⑤ 상대의 말을 일부 긍정하면서 모순점을 지적하여 자신의 주장의 정당성을 획득하려 한다.

34. ㉠에 나타난 성진의 심적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허망함 ② 괴로움 ③ 비참함 ④ 고마움 ⑤ 부끄러움

35. ㉡을 통해 대사가 성진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 ① 제행무상(諸行無常) ② 생자필멸(生者必滅)
- ③ 회자정리(會者定離) ④ 천려일득(千廬一得) ⑤ 권불십년(權不十年)

[36~4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슈퍼마켓에서 혹은 현금 자동 인출기 앞에 길게 늘어선 줄들을 보고 ‘어느 줄에 설까’를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순간적인 눈굴림과 쪼잔한 잔머리를 동반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고민 끝에 제일 빨리 줄어들 것 같은 줄 뒤에 서지만, 늘 다른 줄들이 먼저 줄어든다. 도대체 그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줄에 섰으면 지금쯤 계산이 끝났을 텐데 말이다.

이 문제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결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슈퍼마켓에 열두 개의 계산대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공교롭게도 내가 선 줄의 계산대가 말썽을 일으킨다거나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서 유독 계산이 느리게 진행될 수도 있겠지만, 평균적으로는 다른 줄과 별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른 줄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또, 사람들은 늘 가장 짧은 줄 뒤에 서려고 할 것이므로, 줄의 길이도 대개 비슷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평균적으로 내가 선 줄이 가장 먼저 줄어들 확률은 얼마일까? 그것은 당연히 $1/12$ 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줄들이 내가 선 줄보다 먼저 줄어들 확률이 $11/12$ 이나 된다는 얘기다. 아주 운이 좋지 않다면, 어떤 줄을 선택하든 결국 나는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드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늘 일기 예보를 챙겨 듣는 것은 아니지만, 우연히 라디오를 듣다 보니 오늘은 비가 온다는 일기 예보가 흘러 나온다. “난 정말 운이 좋지. 일기 예보를 못 들었으면 어떡할 뻔했어.” 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우산을 챙겨 집을 나서지만, 이런 날이면 어김없이 하루 종일 햇볕이 쨍쨍하다. 더욱 억울한 상황은 집에 도착하고 나면, 그제서야 비가 오는 경우이다. 일기 예보의 적중률이 80%가 넘는 이 시대에 도대체 이런 일은 왜 생기는 것일까? 날씨마저도 나를 배신하는 걸까?

좀 엉뚱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로버트 매튜스의 계산에 따르면,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더라도 우산은 안 가져가는 것이 좋다. 일기 예보의 적중률이 평균 80%가 넘는 것은 사실이지만,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만약, 기상청에 근무하는 기상 통보관이 집에서 잠만 자면서 일 년 내내 무조건 비가 안 온다고 예보를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경우 일기 예보 적중률은 몇 퍼센트나 될까? 우리나라의 경우, 일 년 중에 비가 오는 날이 많아야 100일. 결국 당신은 아무런 계산 없이 무조건 비가 안 온다고 우기기만 해도 $265/365$, 즉 72.6%는 맞는 꼴이 된다. 문제는 비가 오는 날보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영국 기상청의 일기 예보 자료를 들여다보자. 24시간 정확한 일기 예보를 자랑하는 영국 기상청은 매시간 비가 올 확률을 전해 준다. 영국 기상청의 일기 예보 적중률은 83%이다. 그러나 실제로 시간당 비가 올 확률은 8% 정도이다. 따라서 무조건 비가 안 온다고 우거도 92%는 맞는다. 최근 몇 년간 통계를 보면, 영국 기상청이 비가 안 온다고 예보를 했을 때, 실제로 비가 안 온 경우는 98.2%나 되지만, 비가 온다고 예보를 했는데, 비가 온 경우는 30%도 채 안 된다. 다시 말해, ㉡비가 온다는 예보는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것이다.

로버트 매튜스가 약간의 수학으로 증명했던 머피의 법칙들은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 주고 있는 걸까? 세상에는 되는 일보다 생각대로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다. ㉢일이 안 될 때마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을 떠올리며, ‘나는 굉장히 재수가 없구나’라고 생각하지만, 로버트 매튜스의 계산은 그것이 ‘재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더 나은 상황이란 언제든지 있기 마련이다. 어쩌면 우리가 바라던 것들이 이 세상에게는 상당히 무리한 요구였는지도 모른다.

36. 밑글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로 가장 알맞은 것은?

- ① 머피의 법칙을 따라야 하는가?
- ② 머피의 법칙은 증명될 수 있는가?
- ③ 머피의 법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④ 머피의 법칙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 ⑤ 머피의 법칙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37. 글쓴이의 의도에 따라 반응하고 있는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내가 응원하는 팀은 늘 지더라. 오늘은 상대방을 응원하겠어. 그러면 우리 팀이 이길지도 몰라.
- ② 어제 밤에 나쁜 꿈을 꾸었어. 어쩐지 예감이 좋지 않아. 운동장 가는 대신 집에서 TV나 볼까 해.
- ③ 내가 응원할 때마다 우리 팀이 지곤 했지만, 운동장에 가서 열심히 응원하겠어. 나 하나의 힘이라도 보태야지.
- ④ 지난밤에 홍남보 선수가 선발 출장해서 우리 팀이 이기는 꿈을 꾸었어. 감독에게 홍남보 선수를 출장시키라고 해야겠어.
- ⑤ 박지국 선수가 선발 출장하면 늘 이겼어. 몸 상태가 썩 좋은 편은 아니라지만, 중요한 게임이니만큼 불가불 출장시켜야 하지 않겠어.

38. 문맥상 ㉠과 바꾸어 쓰기에 적합한 말은?

- ① 필연적인 ② 계산적인 ③ 결정적인 ④ 필수적인 ⑤ 운명적인

39. ㉡에 대한 비판적 발언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2.8점]

- ① 기상청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감정적 발언은 지양되어야 해.
- ② 과학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선동하는 언사로 비난을 면치 못할거야.
- ③ 다수가 신뢰하는 것을 혼자만 믿지 못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처사가 아니야.
- ④ 과학적인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을 믿을 게 못 된다고 하는 것은 독선이 아닐까?
- ⑤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런 말을 한다면, 이는 일반인들을 현혹시키는 꾀변에 지나지 않아.

40. ㉢의 경우를 잘 나타내 주는 속담은? [2.2점]

- ① 쪽박 쓰고 벼락 피할까.
- ② 흥조가 들려면 장맛부터 변한다.
- ③ 개가 짖는다고 다 도둑은 아니다.
- ④ 도마 위의 고기가 칼을 무서워하랴.
- ⑤ 안 되는 놈은 꿈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